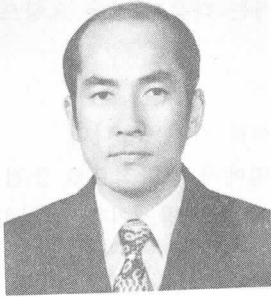


“후보돈 때가 중요하다”



윤 희 진
(대월중돈장 대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다고 한다. 외국가면 금방 보이는 것이 어디서나 줄서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인데, 그래서 나도 앞으로는 좀 서두르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하면서도 돌아오면 곧 잊어먹게 된다. 종돈을 사고 파는 것을 보아도 「금방 쓸 수 있는 것」을 찾는 수가 많고 급하다보니 제대로 크기도 전에 번식에 사용하게 된다. 돼지는 교배시킬 수 있는 나이와 거래되는 시점(체중 90kg내외)에 몇달 간의 차이가 있어서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후보돈 보충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사고가 발생하던가 수태가 안될때에 가서야 도태를 하고 비육시키는 돼지 중에서 적당히 선발해서 보충하게 되면 번식돈군의 전체적인 수준은 차츰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일반적인 암돼지의 경제적 수명은 7~8산이 한계이고, 운동을 충분히 시킬 수 있을 때 3년 6산 정도가 가능해서 매년 3분의1 씩을 교체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도태를 하게 된다. 초산돈은 아무래도 산자수가 적고 자기 자신의 몸도 충분히 발육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후의 발정재귀가 늦고 무발정이나 발정미약 등의 번식장애라던가 다리사고가 많은 경향이 있다. 또 7산 이상돈은 자돈의 발육이 균일하지 못하고 육성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2~6산의 모돈을 60% 이상 확보하고 초산과 7산 이상은 각각 20%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모돈의 도태는 번식기록을 정확히 해 나가면서 농장나름의 계획을 세워 계획적으로 해 나가되 ① 우선 수태율과 산자수를 체크해서 세 번 교배시켜도 임신이 안되고 사료만 먹어치우는 것, 연속해서 산자수가 6 두이하인 것, 젖이 안 나와서 새끼를 잘못 키우는 것(특히 3주령 복당체중이 연속 33kg미만) ② 산육능력, 즉 생산된 자돈이 출하까지 오래 걸리거나 도체등급이 떨어지는 것 ③ 임신에 따른 체중증가를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리나 허리가 약한 것 ④ 돈군전체의 위생대책을 위해서 만성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것 ⑤ 자돈에서 기형, 유두수 부족, 특히 맹유두와 같은 불량형질이 많이 나타나는 것 등은 도태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의 육성돈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암돼지는 75%를 쓴다고 보면 필요량의 1.3배, 웅돈은 새끼에 대한 영향력도 크고 임신할 필요가 있으니까 2 배를 선발했다가 능력이 좋은 놈을 고르면 되겠다.

품종별로는 랜드레이스는 암놈같이 보이는 간성(間性)이 4% 정도가 있어 외음부가 큰 돼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요크셔의 후구가 이상하게 큰 것은 번식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체폭이 좁고 얼굴이 긴 것은 신경질형이며,

듀록과 마찬가지로 체고가 큰 것은 등지방이 얇고, 체고가 낮고 체폭이 큰 것은 등지방이 두꺼워지기 쉽다고 한다. 또한 모계로서 랜드레이스 보다는 다리가 튼튼하여 내용년수가 길고 숫놈 품종으로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사 료급여방법이나 방목여부가 번식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일본 북해도에서 한 시험에 의하면, 사내육성(舍內育成) 일때 체중 120kg까지 무단급이시에 192일, 전반 무단급이-후반 제한급이가 213일, 전기간 제한급이가 235일 걸렸다. 발정징후는 170일 전후(체중 약 100kg 시)에, 초발정은 전기간 제한구만이 214일(체중 110kg)에 발정되고 생식기발달도 충실했으나 나머지구는 나타나지 않았고 생식기도 발달되지 않았다. 이런점으로 보아 증체를 빠르게 후보돈을 육성해도 체중만으로는 교배시 체중에 도달했으나 번식기능은 미발달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무단급이는 빠른 증체의 영향으로 다리·발굽의 강건성을 떨어뜨리는 나쁜점도 있다. 또 사내사육시의 돼지의 행동은 먹고 자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으나, 하루 5시간씩 방목을 시킨결과 운동량증가로 증체는 떨어졌으나 초발정은 사내사육 115kg(220일)에 비하여 방목구는 100kg(195일)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방목구는 체중 130kg이 될때까지 모두 2회 이상의 확실한 발정이 나타나고 주기도 안정되었다. 난소의 황체수도 방목구가 약간 많은 편이었고 걸음걸이도 양호하며 발굽의 접지면적은 증가시켜 다리·발굽의 강건성도 좋게 하므로 육성기간 중의 방목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그 러면 언제부터 번식에 사용할 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생후 200일령이전, 또는 체중 100kg이하에서 초발정이 올 경우의 번식개시 시기는 초발정때부터 두·세번째 발정시이고 생후

육성돈의 사양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발정감정에 의한 각 개체별 발정상태를 기록하는 일이다.

210일령이후 체중 110kg 이상에서 초발정일 경우는 다음 발정때부터이다. 왜냐하면 육성돈의 발육상태가 좋고 나이도 번식적기라 하더라도 그때가 초발정일 경우에는 자궁이나 난소의 발육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산자수가 적다든지, 생시 체중이 작다든지, 비유량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다.

번식시기별 생식기관의 변화중에서 자궁중량의 변화가 가장 뚜렷한데, 성성숙기전에 비하여 발정유도시에는 두배로 커지고 초발정시에는 또 그 두배, 발정 재귀시에는 초발정시보다 다시 두배로 커진다. 이 자궁상태는 배란수와 더불어 산자수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된다.

같은 환경에서 육성돈의 발육이 빠른 개체는 늦은 것보다 초발정이 빠르고 봄새끼는 가을새끼보다, 교잡종은 순종보다, 군(群)사육은 개체사육시보다 빠르고 암놈돈사에 숫놈이 있으면 빠르다. 초발정은 유전적인 것보다는 개체차에 의한 편이다.

생 후 240일에 체중 125kg전후에서 3번째 발정이 오고 첫 교배를 시켜 번식성 좋고 튼튼한 모돈을 만드는 예를 든다면, 전기간 제한급이로서 기대증체량은 체중 30~90kg에서 620~650g, 90~130kg에서는 600g으로 한다. 60kg에서부터 방목을 시켜 200일(체중105kg)에 첫 발정, 220일경 2회발정, 240일에 첫 교배를 실시한다. 육성돈의 사양관리에는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많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발정감정에 의한 각 개체별 발정상태를 기록하는 일이다.